

FICTION

제목 : IN THE KEY OF NIRA GHANI

가제 : 니라의 멜로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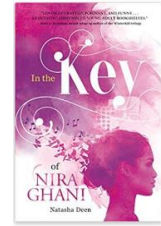
저자 : Natasha Deen

출판사: Running Press Kids

발행일: 2019년 4월 9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문학 소설



- * 반스 앤 노블 ‘2019년 가장 기대되는 도서 25권’ 중 한 권으로 선정
- * “매력적이고, 진솔하고, 만족감과 행복을 느끼게 하는 따뜻한 이야기” - 「커커스 리뷰」
- * “복잡하게 꼬인 가족 문제와 이민자가 겪어야 하는 상황에 관한 러브레터. 갈망과 소속감을 놀라울 정도로 진실되게 묘사한 책이다” - 『Hit the Ground Running』의 작가 엘리슨 휴스

아무리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고 싶어도, 전교생 중에 피부색이 검은 유일한 사람이 되고 그 사실을 하루도 빠짐없이 대놓고 곁에서 놀리는 못된 아이들이 있다면 그러기가 쉽지 않다. 가이아나에서 살다가 2년 전 부모님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온 니라 가니는 대체 왜 이런 상황에 자신을 내몰았는지, 학교에서 보내는 매 순간 원망한다. 선생님들은 아직도 출석부에 적힌 니라의 이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거의 대부분이 함께 자라면서 공부해온 백인 아이들은 니라를 물에 동동 떠 있는 기름처럼 대한다. 단연 눈에 띄는데 유령처럼 외면당하는 존재, 그 아이러니 속에서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이 지내는 니라를 겨우 버티게 하는 것은 딱 세 가지였다. 유일한 친구이자 베스트프렌드인 에밀리, 니라와는 정반대의 꿈 같은 삶을 살면서 여학생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노아, 그리고 트럼펫이었다. 그러니 학교 재즈밴드 오디션 공고가 붙고, 노아가 기타에 이어 색소폰까지 새로 배워서 그 밴드에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무조건 그 밴드에 들어가서 좋아하는 트럼펫도 실컷 불고 좋아하는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 설레는 일이 또 있을까? 하지만 수많은 장애물이 니라의 발목을 움켜쥔다. 그 중에 가장 끈질기고 높은 벽은 부모님이었다.

문화도, 사고방식도 전혀 다른 나라에 이민을 온 뒤에도 가이아나의 전통을 고수해온 부모님은 니라의 미래 직업을 이미 다 계획해두었다. 니라의 흥미나 적성과는 전혀 무관한 그 직업은 의사 또는 과학자였다. 그 두 가지 외에 다른 건 생각하지도 않았고, 부모님의 기준에 꼭 맞아 떨어지는 사촌이 있다는 사실은 니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니라가 좋아하는 일이자 평생 하고 싶은 일은 음악이었다. 가난의 지독한 고통을 잘 아는 부모님은 의사나 과학자 같은 직업을 가지지 못하면 평생을 ‘시궁창에 처박혀 살아야 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고, 외동 딸인 니라가 그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수업 시간마다 같은 조가 되려는 아이가 하나도 없고, 에밀리와 밥을 먹으면서 겨우 숨 쉴 수 있는 점심 시간조차 엄마가 고집스

레 싸준 도시락의 내용물에 따라 매일 천국과 지옥을 오가고, 맥켄지라는 사악하기 그지 없는 아이가 거의 졸졸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생활에 신물이 난 니라는 이번만큼은 하고 싶은 일을 무조건 해보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에밀리의 적극적인 응원과 노아와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희망을 연료로 삼아 재즈밴드 오디션 준비에 시동을 건 니라는 아무리 굳게 마음 먹고 애를 애를 써도 안 되는 일, 꼬이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또 다시 아프게 깨닫는다.

일단 부모님이 두 팔 걷어 부치고 반대하는 트럼펫을 방과 후에 계속 연습해야 하고, 트럼펫 값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남는 시간에 아르바이트도 해야 한다. 어떻게든 시간을 쪼개고 엄마아빠의 눈을 피해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힘겨운 니라는 그 사이 난데없이 에밀리의 베스트프렌드 자리를 빼앗으려는 맥켄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깜짝 놀란다. 학교에서 소위 '잘 나가는 무리'에 속한 맥켄지는 맨날 초코 바를 입에 달고 사는, 강마른 여학생 둘은 붙여놓은 듯한 거구에 입술 옆에 언청이 수술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는 에밀리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친한 척일까? 힌두교도가 아니라고 수천 번을 이야기해도 소와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왜 소를 안 먹냐고 꼬치꼬치 물어댈 정도로 걱정하고 니라를 괴롭혀온 맥켄지의 그런 행동은 다른 의도가 깔린 것이 분명했다. 게다가 노아와 가까워지려던 희망까지 뜯겨버리는 방해꾼의 등장으로 점점 멀어진다. 부모님이 니라의 '롤모델'이 되기를 바라는 완벽한 사촌, 패라가 노아와 가까워진 것이다. 과연 니라는 이 모든 골치 아픈 상황에서도 계속 트럼펫을 연습하고 밴드에 들어갈 수 있을까?

반항아로 찍혀 가족들과도 멀어지고, 에밀리와의 사이도 이상하게 멀어진 후 트럼펫 외에는 위안을 얻을 곳이 없는 우울한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니라는 도대체 이 넓은 세상에 마음 편히 기대고 서 있을 만한 자리 하나 없다는 소외감에 시달리는 건 니라 자신만의 고민이 아님을 깨닫는다.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이 견뎌야 했던 가슴 아픈 가족의 과거를 알게 된 피부색과 출신 때문에 차별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면서 정작 스스로도 나름의 기준을 내세워 선을 긋고 벽을 쌓아 왔음을 떠올리고,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한다. 가이아나 출신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생김새건 출신이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당당해지는 법을 배워가는 니라의 성장기가 매일 문화 충돌을 경험하는 이민자들의 생생한 현실과 함께 펼쳐지는 흥미로운 이야기다.

<저자 소개>

나타샤 딘(Natasha Deen)은 가이아나에서 태어나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왔다.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현재는 캐나다 앨버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Sleight of Hand』, 『The Guardian』 시리즈, 『Burned』, 『Lark Holds the Key』 등을 발표했다.

제목 : THE ADVENTURES OF AARON BROOM

가제 : 애런 브룸의 모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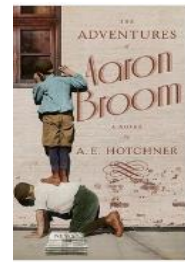
저자 : A.E. Hotchner

출판사: Nan A. Talese

발행일: 2018년 7월 10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성장 소설



*** 프랑스, 독일 판권 계약**

*** “미국 문학사에 하나의 기둥으로 오래오래 남을 소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포레스트 검프』의 작가 윈스턴 그룸**

*** “모든 장면이 생생하고 등장인물들이 진짜 같은, 뛰어난 소설가만이 쓸 수 있는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흥미진진하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Shoot First』의 작가 스투어트 우즈**

쫓기고 도망 다니는 생활에 익숙해져 또래보다 일찍 철이 든 애런에게 생애 최대의 위기가 닥친다. 아빠가 절도 혐의에 살인 용의자로 몰려 바로 코 앞에서 수갑이 채워져 잡혀간 것이다. 사건 현장에 아빠와 함께 들어섰고 주변이 온통 소란스러울 때 슬그머니 빠져 나온 진짜 살인범의 얼굴을 똑똑히 목격한 애런은 경찰이 엉뚱한 사람을 잡아갔다고 열심히 호소하지만, 누구도 열두 살짜리 아이의 말을 믿지 않는다. 그저 아빠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으로만 여기는 이 답답한 상황에서, 애런은 즐겨 읽던 추리소설의 명석한 탐정들을 떠올린다. 억울하게 잡혀간 아빠를 감옥에서 구하려면 홀즈, 포와로, 그리고 마플 여사까지, 번뜩이는 지혜와 판단력이 필요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의 무고함을 밝히고 사악한 살인자가 붙잡히도록 만들겠다고 결심한 애런은 잘 곳도 없고 당장 배를 채울 밥 한끼 사먹을 돈도 없지만 곳곳하게 수사를 시작한다. 100세가 된 작가가 마지막 소설 이후 20여 년 만에 새롭게 내놓은 이 소설은 대공황 시기를 배경으로 가난에 시달리지만 정감 가득한 평범한 이웃들의 모습을 선명하게 그리고, 홀로 살아 남기도 버거운 법한 어린 소년이 절대 기 죽거나 굶히지 않고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으로 수많은 난관을 대차게 이겨내는 과정을 따듯한 시선으로 따라간다.

시계 회사에서 상품을 떼어다가 시내 상점에 납품하는 일로 생계를 꾸려온 애런의 아빠 프레드는 아내가 갑자기 요양원에 들어가면서 경제적으로 더 궁핍한 상황이 된다. 결핵으로 거의 죽을 뻔한 애런의 엄마는 간신히 목숨을 부지했지만 세 식구가 지내는 작은 집의 집세도 감당하기 힘들었던 판국에 병원비까지 추가되니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지난 몇 달간 애런과 아빠는 거의 한 달마다 이사를 다녔다. 멀쩡한 세입자처럼 집을 구해서 들어간 다음 월세를 후불로 내는 점을 이용해서 돈을 내야 하는 날이 오기 직전에 도망치는 수법을 택한 것이다. 이 알미운 부자를 찾아내려고 혈안이 된 건 집주인들만이 아니었다. 빌리고 못 갚은 돈이 많아서, 아빠의 유일한 재산이자 이런 도피 생활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될 허름한 트럭도 재산압류를 담당하는 공무원 눈에 띄기만

하면 당장 빼앗길 형편이었다. 충격적인 사건이 터진 그 날, 여름의 느지막한 오후에 아빠가 금은방에 시계를 보여주러 들어갔을 때 애런은 트럭을 떠나지 못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언제 어디서 압류 담당자가 나타날지 모르므로 귀중한 트럭을 두 눈 크게 뜨고 지키는 것이 애런에게 주어진 역할이었다. 지독한 불경기로 시계가 영 팔리지 않아 곤혹스러워하던 아빠는 상품을 좀 보여달라는 금은방에 신이 나서 들어갔고 애런은 아빠가 늘 가지고 다니는 커다란 상품 가방을 내려 놓는 모습까지 트럭에서 다 지켜보았다. 그런데 순간 가게 안에서 총소리가 나더니, 유리창과 보석 진열장이 와장창 부서졌다. 길가던 행인이며 가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통에 정신이 멍해진 애런은 경찰 손에 붙들려 나온 사람이 아빠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겁한다. 눈치가 이미 수백 단이라 경찰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슬쩍 다가가서 엿들어보니, 충격으로 금은방에서 사람이 한 명 죽었고 현장에 있던 아빠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됐다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애런은 절대 아빠가 한 일이 아님을 확신할 수 있었다. 총성이 난 직후에 가게를 빠져 나온 남자가 허리춤에 권총을 끼워 넣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아빠가 돈이 궁해서 도둑질을 하려다 살인까지 저질렀다고 철썩 같이 믿는 경찰을 설득하려면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만 한다. 프레드에게 이제 열두 살밖에 안된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회 복지사가 배정되어 애런을 ‘보호’하기 위해 찾아 다니기 시작하고 집에도 경찰이 꼭 들어찬 상황이라 갈 곳이 없어진 애런은 배를 굶고 공원에서 숨어 지내면서도 연기처럼 사라진 살인자를 본격적으로 찾아 나선다.

우선 사건이 벌어진 금은방의 직원들을 만나 당시 상황을 자세히 듣는 것으로 시작된 애런의 ‘수사’는 뜻밖의 친구들과 기꺼이 도와주려는 고마운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천천히 진척된다. 이미 세상에 지쳐버린 신문팔이 소년, 예전에 이웃으로 만났던 간질을 앓는 소녀, 의욕 넘치는 십대 기자, 해군 출신의 변호사, 애런과 아빠가 머물던 건물의 친절함 관리인 등 다양한 연령과 직업의 사람들은 아빠의 결백함을 굳게 믿는 당찬 소년의 이야기가 허튼 소리도 아니고 무조건 아빠를 옹호하려는 주장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준다. 심시일반으로 수집한 정보들을 퍼즐처럼 짜맞춰 나간 결과 마침내 드러난 범인의 윤곽은 이 아마추어 형사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무서운 범죄와 연결되어 있다. 과연 애런은 날마다 자신의 행방을 찾으려고 찾아오는 빗쟁이며 공무원들의 눈을 무사히 피해서 끝까지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 아무리 곤란한 상황이 닥쳐도 크게 당황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애런의 밝은 에너지는 팍팍한 생활에 지쳐 있었지만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서 그를 도우려는 착한 사람들은 물론 독자들도 마음까지 환하게 밝힌다. 열세 살 생일 선물로 아빠가 풀려나고 엄마도 다 나아서 병원에서 나오는 것, 딱 그 두 가지를 꿈꾸는 애런의 전염성 짙은 긍정과 인내가 페이지마다 사진처럼 선명한 1930년대의 따뜻한 옛 감성과 어우러진다.

<저자 소개>

A.E. 호치너(A.E. Hotchner)는 헤밍웨이, 도리스 데이의 전기 등 여러 편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쓴 저술가이자 소설가다. 헤밍웨이의 여러 작품을 영화로 각색하는 일도 맡았다. 그 밖에 회고록 『King of the Hill』을 썼으며 폴 뉴먼과 함께 업체 ‘Newman's Own’를 설립했다.